

##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를 인력부족 산업으로 파견하는 서비스 확산

- 커리어社, 개호(간병)업계에 1,000명 파견

2021. 6. 9. 일본경제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자리를 잃은 인재를 일손부족 산업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신흥기업 사이에 확산. 음식업 등에서 그만둔 이직자를 대규모 채용, 재교육하여 개호업계에 파견하거나, "재직 출향(기존 근무처에 적을 두고 파견)"을 온라인으로 중개하거나 하는 사업이 등장. 향후 고용조정정보조금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에 한 몫 할 것 같음.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한 인력회사 커리어는 향후 1년간 1,000명을 고용할 계획임. 음식과 관광, 항공 등 서비스업을 떠난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함. 정사원으로 채용하여 1개월~1개월 반의 연수를 실시한 후 개호시설이나 병원 등에 파견함.

근무처에 재직할 채 파견의 형태로 인재를 받아들이는 '재직 출향'도 지원. 개호업계는 코로나 전부터 일손 부족이 계속되었음. 재직 출향은 항공 대기업 등이 먼저 도입하였지만, 받아들이는 곳을 찾아야 하는 등 인사 담당자의 부담은 적지 않음. 커리어가 중간에 개입해서 중소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재 소개인인 탈리스만은 7월에도 재직 출향을 활용해서 인재 송출을 원하는 기업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기업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시작. 대상이 되는 인재의 능력과 직종 등을 등록하면, 기업이 시스템 상에서 직접 협상할 수 있음. 여행사의 기획·영업 담당자가 IT기업에 파견하는 등 사례를 상정. 연간 50~100 건의 성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타 업종에서 농업으로의 취업 지원은 Life Lab社가 하고 있음. 농업 일이나 생활 스타일에 대한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농업 취업

사이트의 신규등록 구직자는 2020년 3월~2021년 2월에 전년동기비 35% 늘었음.

신흥기업이 매칭지원에 나서는 배경은 업종에 따라 노동수급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임. 일본·도쿄상공회의소의 조사(응답 3001개사)에 따르면, 건설업은 전체의 67.6 %, 개호·간호업은 65.4%의 기업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답변. 한편, 숙박·음식업은 “과잉이다”가 23.8%에 달했음.

중소기업에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조정정보조금의 특례조치는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 될 전망.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여행사는 코로나로 종업원을 1/3로 줄였는데도 "고용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

하지만 재직 출향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同회의소의 조사에서는 “타사 사원을 출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응답은 4%에 그침. 인건비 부담 결정이나 파견자의 기술정도 파악이 어려운 것 등이 과제임. 중개역할을 하는 민간 서비스의 수요는 큼.